

임노식 PEBBLE SKIPPING 물수제비

2.18~3.14 통의동 보안여관

박성환 | 아마도예술공간 책임큐레이터

동시대 회화란 무엇일까? 사진이나 영상, CG 등 다양한 시각표현이 넘치는 '지금'에 이르러 회화를 그리는 의미란 무엇인가? 보안여관 신관에서 열린 임노식 작가의 개인전 <PEBBLE SKIPPING 물수제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차세대를 담당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회화를 부감할 수 있었다.

전시는 작가의 과거 작품에서 받은 일반적인 인상을 시원하게 배반하며 시작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풍경 회화가 설치로 확장되는 형식실험이다. 공간을 구획하는 벽, 기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몇몇 장치를 통해, 평면적 공간에 갇힌 시간을 3차원의 공간으로 프레임 레이어를 쌓아올린다. 나무에 아크릴 채색하여 올린 기둥 <Floating>은 원래 전시장에 있던 들보와 조명 레일을, 가벽의 둘레에 아크릴 채색을 한 <Frame>은 이외의 가벽 내부를 회화 안으로 불러들인다.

같은 맥락에서 <branch630>이 다른 작업을 위한 프레임으로 활용된 점 역시 흥미롭다. 원호로 공간을 가르며 세워둔 가벽 위에 나뭇가지를 그린 캔버스 630개를 재봉하여 설치한 <branch630>. 그 위에는 또다시 인스턴트 카메라로 찍은 사진처럼 그려진 여러 단상을 부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3개의 레이어는 원래 존재하던 요소(가벽) 위에 다른 것(<branch630>)을 조합하고, 각각의 다른 이미지로 연결하며 축적적으로 더듬어 나아가도록 배치되어 있다.

어쩌면 이러한 배치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우리 자신이 무심코 선택하는 장면들처럼, 생활의 일부를 거울과 같이 투사하는 '풍경의 기억'을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풍경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지만, 언뜻 이와 같은 모티프 배치로 인해 사람 손에 의해 편집된 허구성, 회화라고 하는 표현 미디어의 인공성이 강조되어 회화의 세계를 탈구축해 나가는 수법으로 보이기도 한다. '재구축=편집'의 개념이나 작업이 이른바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회화가 가진 가치이며 트렌드 워드일지도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자신에게 익숙한 풍경을 그려내 하나의 패턴으로 회수되는 몇몇 풍경 회화 작가의 작업들과는 차별되며, 작품이 향하는 곳은 작가가 겪은 사건, 즉 걷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만나는 경험을 새겨나가며 지금까지 없었던 시아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작품 안에 있는 작품의 틀이 인상적인 <Pebble Skipping>과 <물때>는 이러한 시아의 변화를 도드라지게 느끼게 한 작업이었다. 특히

작은 스마트 폰에서 두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면서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했을 때, 원래의 이미지가 가진 정보를 상실하며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물때>의 추상적 이미지 발현은, 이전 작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도이기에 작가가 눈으로 얻어진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유연해졌음을 느끼게 했다.

개인적인 경험의 현실을 내면화한 작업에서 나타나는 리얼리티는 분석적인 태도로 작품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관객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간다. 작가가 1년간 사용했던 작업실의 공기를 오뎅이 머금고 있는 <Workroom>, <Canvas>, <Brush>는 보다 사적이다. 각각의 소재가 가지는 의미나 이미지의 중첩으로부터 오는 정보의 불투명함보다도 대상과 적당히 떨어진 곳에 있기 보다는 대상 안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임노식의 작업은 누군가의 풍경이 될 수도 있는 풍경회화에서 더욱 사적인 이야기를 품은 기억으로 점차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 보아도 기억의 창고 속에서 또렷이 그 순간이 소환되는, 그렇게 내가 나일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회화를 임노식은 그린다. ●



왼쪽 임노식 <Floating01~08> 나무에 아크릴 가벽크기 2020



오른쪽 임노식 <Canvas 01>(사진 왼쪽) 캔버스에 유채 245×184.5cm 2019